

불어의 시간성 변수에 관하여 :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타난 예를 중심으로

고 영림 (Young-Lim KO)

Institute of Phonetics

University of Human Science of Strasbourg, France

Abstract

In this paper, temporal variables of French oral discourse are analyzed and interpreted. They are distinguished in two groups, the temporal external variable and the temporal internal variable. The external variable is determined by the breathing function as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verbal message and the internal variable is directly associated with multiple effects by the accentuation on final syllable of rhythmic group in actual French. Temporal variables, external and internal, are taken as devices of verbal support that serve to create immediate effects of oral production.

1. 서론

언어의 운율적 요소를 다룰 때 리듬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 변수적인 연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리듬의 기본 요소로서 시간성 변수를 우선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간의 지속 상태가 언어 수행의 필요조건이자 동시에 그 제약 조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운율의 기본 세 변수 (길이, 높낮이, 세기) 중에서 우리가 시간성 변수라 부르는 '길이'의 문제는 어떤 단위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 음절 (syllable), 리듬 그룹 (rhythmic group), 호흡 그룹 (breath group) 등 - 그 단위가 갖는 기능을 해석할 여지가 달라진다. 그런데, 종래 운율에 관한 연구들이 실제 상황에서 실현된 언어자료체가 아닌 준비된 문장 또는 텍스트를 화자에게 읽게 한 뒤 문장 구조와 운율 요소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 수행 시 운율의 실제 기능을 전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한 언어의 리듬적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황에서 한 화자가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시간성 변수를 운용하는지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연발생적 언어자료체에 나타난 시간성 변수를 분석 및 해석한다는 것은 인위적 자료체를 근거로 한 기존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화자가 일정한 상황 요인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의사 전달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시간성 변수의 기능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 불어의 시간성 변수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 보고 - 외적 변수, 내적 변수 -, 무엇보다도 불어의 특성 중의 하나인 리듬 그룹 마지막 음절의 상대적 장음화 현상이 어떻게 각 리듬 그룹을 구분 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보기로 한다. 이 장음화 현상은 불어의 액센트가 리듬 그룹 마지막 음절에서 인지되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4] [5].

2. 언어자료체 및 화자

France-Culture 라는 프랑스 라디오 방송 중 "Agora"라는 라디오 인터뷰를 녹음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두 사람의 대담자가 있는데, 프로그램 진행자와 초대 인사이다. 초대 인사인 Ecole Normale (사범학교)의 교수의 말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대화형식의 상황에서 쓰여진 자연언어가 갖는 특징 중에 머뭇거림 ("euh:")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3. 실험 방법

녹음된 라디오 인터뷰를 프랑스 Strasbourg 대학 음성학과의 오셀로 그래프를 통하여 운을 분석에 필요한 세 기본 요소(길이:Cs, 높이:Hz, 세기:dB)의 시각적 도형인 오셀로그래프를 마련하였다.

4. 실험 결과

- */호흡 휴지의 길이/
- **두 호흡 휴지 사이의 호흡 그룹의 길이
- *** 리듬 그룹간의 시간 균형 시그 길이
- **** 음절 길이/모음 길이 (장음화의 정도)

"oui je crois queuh: il y a une manière spécifiqueuh:			**=363
***83	78	83	
	****27/15(1)	27/13(1)	

*/59/ euh: aux intellectuels à intervenir sur des problèmes actualité			=398
77	73		
	36/15(1)	31/16(1)	33/21(2)

/53/ et que euh: sur un problème comme celui-là			
		13/8(0)	

les historiens euh: ont beaucoup de choses à dire"	/20/		=494
39/29(3)		37/27(3)	

서론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시간성 변수, 즉 외적 변수와 내적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려 본다. 외적 변수란 호흡 기능에 의하여 말연속체가 끊길 때 구분되는 호흡 휴지 (respiratory pause)와 호흡 그룹 (breath group)을 지칭한다. 호흡은 언어 수행에 필요한 공기 공급 기능 뿐만 아니라 말 연속체들을 경제적으로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내적 변수는 화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직결된 변수로 불어의 특징인 리듬 그룹 (rhythmic group) 마지막 음절의 상대적 장음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런 분석 기준들을 토대로 라디오 인터뷰라는 상황에서 수행된 자연언어의 시간적 변수의 기능과 그 변이성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외적 변수인 호흡 휴지의 위치를 살펴보면 화자는 언술의 문법적 분절과 호흡 기능을 일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59cs의 호흡 휴지는 두개의 구 사이에서, 53cs의 호흡 휴지는 두개의 절 사이에 놓여 있다. 호흡에 의한 말 연속체의 분절을 통해 화자는 메시지의 의미 단위간의 경계구분을 동시화 하는 것이다. 이 호흡 휴지로 인해 생긴 호흡 그룹은 그 길이를 보면 **363cs - 398cs - 494cs 으로 각 그룹간의 차이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호흡 그룹의 길이란 언술 구성에도 좌우되는 문제지만 자연언어의 특성 중의 하나로 호흡 그룹 간의 시간적 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외적 변수는 언술구조와 복합적 유기 관계를 맺고 있어서 [1] [2], 화자가 실제 상황에서 즉 실제적 또는 잠재적 청자가 있을 때 상황 요인의 영향 하에 언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단편적으로 기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 외적인 요인, 상황 요인들이 어떻게 시간성 변수의 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기 위해서는 이처럼 표면화된 현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언어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내적 변수를 살펴 보기 위해서, 우선 리듬 그룹간의 관계와 리듬 그룹 마지막 음절의 장음화 정도의 변이성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현대 불어의 특징적 현상 중의 하나로 리듬 그룹간의 시간 균형을 들 수 있다. 위의 예에서 처음에 나타난 머뭇거림 ("queuh:")은 달리 표현하면 무성의 호흡 휴지와 대비되는 '유성 휴지'라고 부를 수 있고 [3], 이 머뭇거림은 그 후속 리듬 그룹의 길이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단위의 실제 길이를 보면 ***83cs -> 78cs - 83cs - 77cs - 73cs 으로, 화자는 언어화한 묵인 리듬 그룹의 길이를 머뭇거림("queuh:")의 길이와 균형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리듬 그룹내에 들어와서 각 음절간의 관계를 살펴 본다면 마지막 음절의 장음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 장음화 현상을 단순히 불어의 액센트 지시 기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화자의 언어 수행의 한 효율적 수단으로 각 리듬 그룹 마지막 음절이 장음화했을 때 그 마지막 음절 간의 길이 관계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위 예에서 보듯이 마지막 음절의 장음화 현상은 각 리듬 그룹에 따라 그 길어짐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더 세분화 하고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보기 위하여 음절 길이 보다 모음 길이를 비교 기준 단위로 삼기로 한다. 모음의 길이는 한 음절의 음향, 청각적 실체를 결정짓는 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 음절의 길이는 음절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연적 사실을 염두에 두더라도 - 열린 음절(CV)은 상대적으로 짧고 닫힌 음절(CVC)은 상대적으로 길다 -, 객관적 비교 기준을 모음 길이에 두어 마지막 음절의 장음화 정도(****)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1)도의 장음화는 리듬 그룹 간의 유사한 모음 길이로 화자가 리듬 반복 효과를 표면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도의 장음화는 리듬 그룹 한정 기능과 한 절이 끝났음을 제시해 주는 통사적 구획 기능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그 모음의 길이가 (1)도의 장음화에 비해서 1,5 배 더 길다. (3)도의 장음화는

(1)도의 장음화에 비해서 2 배 더 긴데 화자는 (1)도에서 처럼 리듬 반복 효과를 내면서도 (1)도와는 변별 시키기 위해 모음의 길이를 2 배 더 길게 한 듯이 보인다. 그런데, (0)도의 장음화 아닌 단음화는 그 앞뒤 문맥을 고려해 보아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0)도의 마지막 음절이 (1)도의 장음화에 비해 반 밖에 되지 않은 길이로 축약이 된 이유는, 등위 접속사인 "et" 를 전후하여 같은 기능의 두 전치사 구 ("sur des problèmes d'actualité" 와 "sur un problème comme celui-là")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화자에게는 전달 해야 할 메시지가 좀더 구체적이어야 하므로 이런 잉여적 수단을 언어화 함과 동시에 불가피한 잉여 효과를 줄이기 위해 후치 절의 리듬 그룹을 빠른 속도로 한정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이 리듬 그룹의 마지막 음절의 액센트는 실현 되지 못하였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자연 발생적 언어에서는 화자가 시간적 조건 또는 제약 내에서 규칙적인 리듬 효과를 주기 위해서, 회귀적 기능을 가진 마지막 음절 액센트 기제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음절 길이의 변별화를 통하여 연결된 의미 단위 즉 한 언술 내의 통사절 간의 전달 효과를 구분했다고 본다.

5. 결론

우리가 살펴본 이 외적 변수와 내적 변수는 자연발생적 언어를 근거로 해서 제시한 해석 방법의 도구인데, 현대 불어가 갖는 운율적 특성 및 리듬 효과의 복잡 다양함의 일부분을 대표적인 시간성 변수들을 통하여 밝힐 수 있었다고 본다. 호흡에 의해서 구분한 호흡 휴지와 호흡 그룹, 즉 외적 변수는 언술의 의미 단위 구성 및 구획과 함께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리듬 그룹의 마지막 음절의 장음화 현상을 내적 변수로 정의하고 장음화 정도가 다양함을 설명함으로써 현대 불어의 중요한 리듬 특성을 언술의 내적 구성과 연결 시켜 해석하였다. 비록 한 예를 통하여 불어의 시간성 변수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나, 다른 상황과 다른 사회 문화적 위치에 있는 화자(들)가(이) 청자에게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어떻게 시간성 변수를 이용하는지 밝히고 그 결과를 비교해 봐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 [1] Davis, R.; Léon, P. (1989), "Pausologie et production linguistique", *Information/Communication*, Toronto, Canadian Scholars' Press, 31-43.
- [2] Grosjean, F. (1980), "Linguistic structures and performance structures : Studies in pause distribution", *Temporal variables in speech : Studies in honour of Frieda Goldman-Eisler*, Dechert, H.W. et al (Eds), Mouton, The Hague, 91-106.
- [3] Guaitella, I. (1992), "Hésitations vocales en parole spontanée : réalisations acoustiques et fonctions

rythmiques", *Travaux de l'Institut de Phonétique d'Aix*, vol.14, 109-130.

[4] Vaissiere, J. (1991), "Rhythm, accentuation and final lengthening in French", *Music, language, speech and brain*, J.Sundberg et al. (Eds), 108-120.

[5] Wenk, B.J.; Wioland, F. (1984), "Aspects rythmiques du discours radiophonique", *Aspects du discours radiophonique*, P.Charaudeau (Ed), Paris, 71-80.